



#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2008~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환자의 18%(2008년 기준 10.1%)를 차지함
  - 동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65세는 6.5%, 66~70세는 3.7%, 71세 이상은 연평균 8.1%를 기록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1.6% 감소함
- 또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은 타 연령대보다 1.6배 높으며 증가세임
  -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110만 원, 20대 160만 원, 30대 166만 원, 40대 173만 원, 50대 202만 원, 60대 231만 원, 70대 370만 원, 80세 이상 495만 원임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상해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의 경우 19세 이하 58만 원, 20대 108만 원, 30대 112만 원, 40대 146만 원, 50대 185만 원, 60대 191만 원, 70대 199만 원, 80세 이상 213만 원임
- 이에 2017년 자동차보험에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 지급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 원으로 전체의 29.5%(2016년 28.3%)를 차지함
  -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60대 미만에서는 5% 증가에 그침
  -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입·통원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
- 인구고령화와 함께 고령 교통사고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511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함
-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와 진료비 증가에 대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함
  - 먼저,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다음으로, 고령일수록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함

## 1. 검토배경



-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 7,699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 원으로 전체의 29.5%(2016년 28.3%)를 차지함
  - 2008~2017년 기간 동안 60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자는 연평균 1.6%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동기간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7년에는 5만 8,774명에 이름
  - 2017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272만 원)은 60대 미만(166만 원)에 비해 1.6배 높으며 증가 추세임
- 인구고령화와 함께 고령 교통사고 환자가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 74만 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는데, 향후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sup>1)</sup>
  -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511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보건계정상 '의무가입건강보험'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논의가 상당히 미흡함
  -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험요율 인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요율 8% 상한조정, 그리고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69조 3,352억 원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9.9%(27조 6,533억 원)를 차지함<sup>2)</sup>
  -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고령화보다는 운전자의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만 있었음
- 본고에서는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발생 현황과 진료비를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1) 통계청 보도자료(2018. 9. 27), "2018년 고령자 통계"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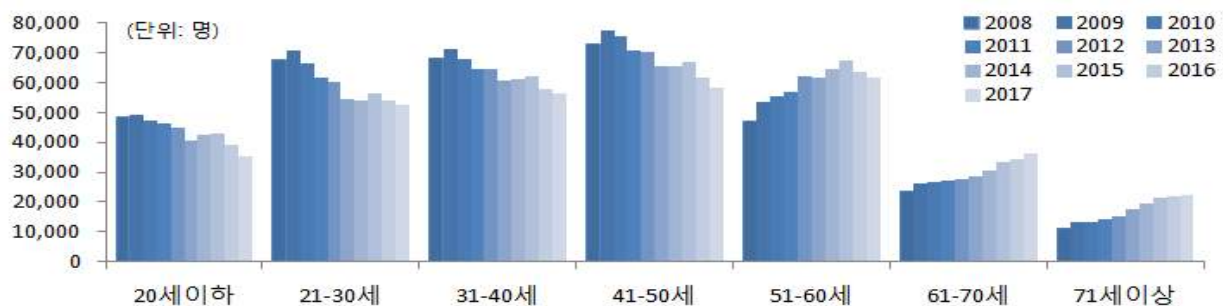
## 2.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



- 2008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를 차지함(그림 1) 참조

- 이는 2008년 10.1%에 비해 7.9%p 상승한 것임
- 동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65세는 6.5%, 66~70세는 3.7%, 71세 이상은 연평균 8.1% 증가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1.6% 감소함
  - 51~60세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 연령별 교통사고 부상자 수(2008~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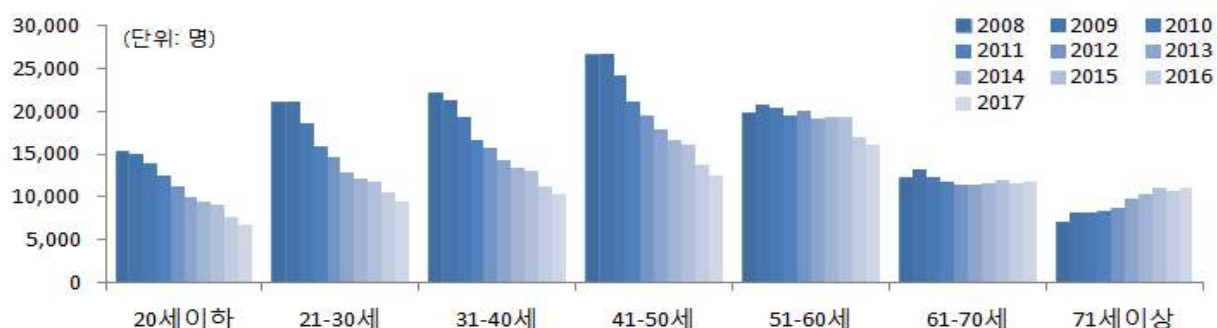


주: 최근일수록 막대의 색상이 밝아짐  
자료: 도로교통공단

- 특히 고령일수록 부상자 수 대비 중상자 수의 비율이 높아 전체 중상자에서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기준 29.4%를 차지함(그림 2) 참조

- 2008~2017년 기간 동안 교통사고 중상자 수는 60세 이하에서 연평균 6.9% 감소한 반면, 71세 이상에서 연평균 5.1% 증가함
- 동기간 부상자 수 대비 중상자 수의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나 고령일수록 높게 나타남
  - 부상자 수 대비 중상자 수의 비율은 2017년 기준 61세 이상에서 39.1%, 60세 이하에서 20.9%임

〈그림 2〉 연령별 교통사고 중상자 수(2008~2017년)



주: 최근일수록 막대의 색상이 밝아짐  
자료: 도로교통공단

■ 60세 이상의 교통사고 부상자가 ‘차대차’ 사고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6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및 차량등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의 교통사고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가해운전자가 60세 이상인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 20%, 차대차 사고 75%, 차량단독 사고 5%임
  -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지난 12년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 2011~2017년 기간 동안 전국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11.2%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의 16.1%를 차지함(〈표 1〉 참조)
  - 서울시의 차량등록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011~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 등록대수의 25.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1년 18%에 비해 7.7%p 상승한 것임
- 운전자가 고령화되어 사고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전체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피해자인 사고가 많아질 수 있음
  - 6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기준 교통사고 발생률은 최저연령 운전자보다 낮음(〈표 2〉 참조)

〈표 1〉 2017년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60대	70대	80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31,665	5,196	6,696	7,780	6,883	5,110	3,656	1,239	215
구성비	100	16.4	21.1	24.6	21.7	16.1	11.5	3.9	0.7
2011~2017년 연평균 증가율	3.4	1.2	4.7	4.3	10.5	11.2	12.0	24.1	3.4

자료: 경찰청 통계자료

〈표 2〉 2017년 가해운전자의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률

(단위: %)

구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 이상
운전면허 기준 (전국)	발생건수	1.281	0.573	0.498	0.559	0.796	0.937	0.955
	사망자 수	0.019	0.010	0.009	0.009	0.016	0.018	0.030
	부상자 수	1.789	0.889	0.759	0.843	1.194	1.393	1.381
	사상자 수	1.809	0.899	0.768	0.852	1.210	1.412	1.411

주: '운전면허 기준'은 연령별 전국 운전면허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비율임  
 자료: 경찰청 통계자료

### 3.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현황



-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 원으로 전체 1조 7,966억 원의 29.5%(2016년 28.3%)를 차지함(〈표 3〉 참조)
  -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60대 미만에서는 5% 증가에 그침(〈그림 3〉 참조)
    - 9세 이하 4.6%, 20대 8.2%, 30대 7.0%, 40대 4.1%, 50대 3.8%, 60대 11.2%, 70세 이상 10.8%
    - 증가한 반면 10대의 경우 2.3% 감소함
  -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입·통원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
- 2017년 60세 미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전체 입·내원일수의 26.7%를 차지함(〈표 3〉 참조)
  -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일수는 전체의 34.8%를 차지하며, 이는 타 연령대와 달리 전년 대비 증가함
    - 입원일수는 전년 대비 9세 이하 3.1%, 10대 9.2%, 20대 2%, 30대 4.9%, 40대 6.5%, 50대 4.2%
    - 감소한 반면, 60대 3.3%, 70세 이상 3.4% 증가함(〈그림 4〉 참조)

〈표 3〉 2017년 자동차보험 청구건에 대한 심결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단위: 억 원, 천 일, %)

구분	심결진료비			입·내원일수		
	외래	입원	전체	외래	입원	전체
0~9세	119	129	248	244	99	344
10~19세	214	433	647	406	299	706
20~29세	917	1,176	2,093	1,603	933	2,536
30~39세	1,619	1,305	2,924	2,971	1,077	4,048
40~49세	1,458	1,561	3,019	3,142	1,316	4,458
50~59세	1,314	2,238	3,552	3,224	1,885	5,109
60~69세	772	1,895	2,667	2,096	1,482	3,579
70세 이상	399	2,150	2,549	1,179	1,516	2,695
전체	6,812	10,887	17,699	14,865	8,607	23,474
60세 이상의 구성비	2016년	16.7	35.2	28.3	21.3	33.0
	2017년	17.2	37.2	29.5	22.0	34.8

주: 1) 2017년 청구건수 기준 심결진료비

2) 심결진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심사 후 실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의 청구진료비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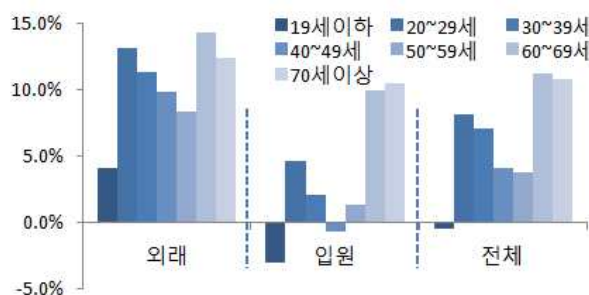
3) 환자 수는 사고접수번호, 보험사코드, 주민등록번호로 산출함

4) 연령구간별 환자 수 단순 합산 시 중복환자 발생할 수 있음

5) 진료시점 기준의 청구된 명세서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림 3〉 연령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년 대비  
증가율(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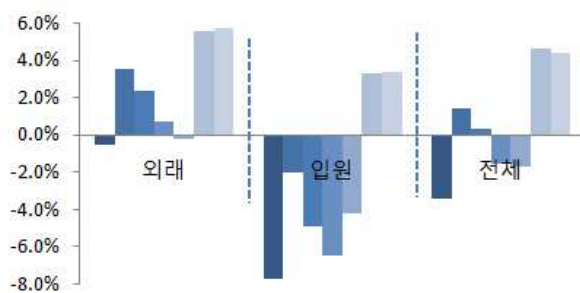


주: 1) 2017년 청구건수 기준 심결진료비임

2) 막대의 색상이 연할수록 고연령대임

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림 4〉 연령별 자동차보험 입·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가율(2017년)



주: 1) 2017년 청구건수 기준 심결진료비임

2) 막대의 색상이 연할수록 고연령대임

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와 자기신체상해담보에서 지급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 (272만 원)은 60대 미만(166만 원)에 비해 1.6배 높으며 증가 추세임

●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와 자기신체담보에서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지급한 부상보험

금은 각각 전체의 21.6%, 22%를 차지하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각각 1.4%p, 3%p 높아짐

- 부상보험금은 치료비(병원치료비,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액,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포함하는데, 치료비가 약 80%를 차지함

-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110만 원, 20대 160만 원, 30대 166만 원, 40대 173만 원, 50대 202만 원, 60대 231만 원, 70대 370만 원, 80세 이상 495만 원임(〈그림 5〉 참조)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의 경우 19세 이하 58만 원, 20대 108만 원, 30대 112만 원, 40대 146만 원, 50대 185만 원, 60대 191만 원, 70대 199만 원, 80세 이상 213만 원임(〈그림 6〉 참조)
- 2015~2017년 기간 동안 대인배상담보의 1인당 부상보험금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함
  - 연평균 19세 이하 4.1%, 20대 6.9%, 30대 8.1%, 40대 5.8%, 50대 5.8%, 60대 4.5%, 70대 이상 4.8% 증가함
  - 자기신체담보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감소한 반면, 타 연령대에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5〉 2017년 연령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 환자 1인당 부상보험금



주: 1) 부상보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별 2017년 완전 종결된 건을 기준으로 작성됨

2) 실선과 점선은 각각 2017년과 2015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 전체 부상보험금 대비 연령대별 부상보험금의 비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그림 6〉 2017년 연령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상해담보 환자 1인당 부상보험금



주: 1) 부상보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별 2017년 완전 종결된 건을 기준으로 작성됨

2) 실선과 점선은 각각 2017년과 2015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상해담보 전체 부상보험금 대비 연령대별 부상보험금의 비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 60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음(〈그림 7〉 참조)

- 2016년 4/4분기 의료기관 종별 60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의원, 의원 순으로 나타남
-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60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지만,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그림 7〉 2016년 4분기 연령별·의료기관 종별 1인당 심결진료비



주: 1) 환자 수는 사고접수번호, 보험사코드, 주민등록번호로 산출함

2) 연령구간별 환자 수 단순 합산 시 중복환자 발생할 수 있음

3) 진료시점 기준의 청구된 명세서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됨

4) 막대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연령대임

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4. 결론



-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로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1인당 의료비가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임

- 먼저, 교통사고 고령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동일상병이라 할지라도 연령별로 치료강도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 부인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다음으로, 고령자일수록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함

- 자동차보험은 당해 교통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일부를 지급함
  -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지급함(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
- 기왕증은 정도 및 종류에 대한 정립된 이론이 없고,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 주요 분쟁 요인임
  - 고령의 교통사고 환자일수록 해당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병력이 많을 개연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애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kiri](#)